

# 전주시 드론축구공 전국시판 돌입

### 드론축구 저변확대 ·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창출 등 기대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된 드론 축구공을 중심으로 드론레저스포츠산업 세계화에 나선 가운데 드론축구공이 전국 곳곳에서 판매된다.

시는 탄소소재와 드론기술을 융·복합한 드론축구의 저변확대 및 세계화를 위해 지역 5개 업체의 기술력이 결합돼 제작된 전주시 드론축구공이 4월 1일부터 전국 2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시판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캡티브중합기술원과 5개 제조사, 2개 유통사와 '드론축구공 전국 시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후속 결과물이다.

드론축구는 최근 드론산업 기술이 급성장하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전주시와 협력기관인 (사)캡티브중합기술원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신개념 레저스포츠로, 탄소소재를 활용해 전용보호기구로 감싸 초고속으로 날아다니다 경기 중 서로 부딪히

더라도 잘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시가 이처럼 드론축구공 전국 시판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전주시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선보인 드론축구 시범경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드론축구공 구입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축구공의 가격은 50만원 선으로, 현재까지 주문이 300개 이상 들어온 상태다.

드론축구공이 판매되면, 드론축구의 저변이 넓어지고 드론축구공 판매도 늘어나는 선순환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등 전주시 신성장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기업의 매출이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축구공 판매를 시작으로 소비자에게 기존의 드론조종을 넘어 스포츠의 즐거움까지 선사할 수 있는



여객선 테러상황 대비한다

군산항 테러·항만방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경비함정과 유관기관 선박 14척과 해경 항공기가 투입됐으며 연인원 150명이 참여했다.

e스포츠이자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기술을 융·복합해 개발한 드론축구공이 널리 보급되면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ICT(정보통신

기술)산업 등 전주시 5대 신성장동력 산업이 성장하고, 도전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독려했던 강력한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초등학교내 텃밭 조성

### 모내기 · 농작물 수확 등 다양한 농사체험 진행

전주시 20개 초등학교에 자리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정서함양을 돕기 위한 학교 텃밭과 벼 체험장이 조성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4월 중 전주시문초등학교 등 20개 초등학교에 학교 텃밭과 벼 체험장을 조성, 학생들이 벼 수확체험과 김장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와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 30여명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학교에는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이 투입돼 1.625㎡ 규모의 텃밭과 텃밭상자 1,037개, 벼체험상자 170개가 조성될 예정이다.

4월 중 각 학교에 텃밭과 벼 체험장 조성이 완료되면, 학생들은 직접 모종을 심고, 모내기와 농작물 수확 등 다양한 농사체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는 최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학교별 학교텃밭 담당교사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은 아이들에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사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활동"이라며 "학교 텃밭이 학생들의 협동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과 실습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아중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로 '탈바꿈'

### 3억원 투입... 부모와 함께 놀이 · 학습 · 체험 · 휴식 가능

전주시가 아중호수 주변 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한다.

전주시 숲에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아이숲 놀이터가 조성된 적은 있지만, 도심 속에 생태놀이터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올해 국비 9000만원 등 총 3억원을 투입해 유아동1가 아중어린이공원을 도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 가까이에서 다양한 놀이와 학습, 체험, 휴식도 가능한 자연생태공간인 생태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시설 노후화로 인해 놀이 시설이 철거된 후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이 방치됐던 어린이공원 약 1.973㎡를 리모델링해 생태놀이터로 조성,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놀이터에는 아이들이 흙과 물, 나무, 풀 등 다양한 자연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오감체험 놀이공간과 비밀요새 놀이터, 보호자 휴게 공간, 운동 공간, 휴게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화장실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미지로 개선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공원위원회

회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공사에 착수, 오는 11월 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중어린이공원이 생태놀이터로 탈바꿈되면, 어린이들에게는 생태놀이 공간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연속의 숲 놀이터인 전주 아이숲을 완산구 동서학동 남교사 부근에 위치한 '팍정발래숲'과 덕진구 덕진동 조경단 옆에 위치한 '임금님 숲' 등 총 2곳에 조성했다. /김민근 기자

### 여직원 탈의실에 물카 설치한 30대 징역

전주시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6시경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직원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동료의 탈의 모습을 그 의지에 반해 촬영했다"며 "법정의 계획성과 반복성에 비추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농촌마을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전주시는 도심지역 위주로 설치됐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외곽 농촌 마을에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외곽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로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제작·설치해 도로명주소 제도의 내실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 9개동 50개 자연마을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아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올해 9개동 10개 자연마을 입구에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개 자연마을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해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전북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에도 도로명주소 맞춤형 시설물이 확충됨에 따라 농촌마을 어르신들도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길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 농촌마을에 까지 안내시설물을 꾸준히 설치함으로써 시민이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찾아 가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전주시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13일 오후 10시55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

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2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채팅 어플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 서 못 나간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

사됐다. 이에 A씨는 "성관계에 응하겠다"며 김씨를 안심시킨 뒤 김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 음주 차량 택시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 2명 부

31일 오전 6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서모(28)씨가 몰던 K7 승용차와 김모(42)씨의 택시가 충돌해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이모(19)군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삼점 입구 유리창 등이 일부 부

서졌지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할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대상인 0.06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와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